



기독교사회복지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EXPO 2010

학술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0. 8. 11(수)
장 소 : 거룩한빛광성교회 비전홀
시 간 : 오후 4:30 ~ 6:13
담당자 : 최 수 남
E-mail : expo_symposium@hotmail.com

1. 명 단

1) 참석

진행위원장 장경준 목사, 교수협력단장 김동배 교수, 학술위원장 유장춘 교수, 전시위원장 최성재 교수, 사무총장 김종생 목사, 위원 손의성 교수(배재대), 위원 이승열 목사(예장통합 사회봉사부), 위원 이호경 관장(파주시 노인복지관), 위원 박종원 관장(강남노인복지관), 위원 안익선 실장(굿피플)

2) 복지포럼 참석후 이석

위원 이준우 교수(강남대), 위원 최무열 교수(부산장신대), 위원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3) 위임

위원 신용규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관협회)

4) 불참

위원 김인 교수(한일장신대), 위원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위원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위원 김산용 목사(한기총복지위원장), 위원 박경양 목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2. 순 서

1) 기조발언 - 유장춘 교수

2) 학술위원회 설명 - 최수남 학술담당

3) 상견례

4) 엑스포전체설명 - 김종생 사무총장

복지영역별 조직, 광역시도별 복지영역별/교단별 조직, 시/군/구 단위는 샘플로 처리함, 영역에서 준비하고 동원하고 대회를 진행, 13개영역

5) 국제심포지엄 설명 - 유장춘 교수

3. 회의 발언 내용

- 영성은 실천적이고 현장의 것이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현재 기획(안)은 균형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 토론자에게 기획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준비하여 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의 사회복지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성과 복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음

- 세이비어 교회의 사례를 보면 신학적이기 보다는 현장중심적인데, 이것의 기반은 영성에서 나오게 됨.

이론과 실재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영성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디아코니아의 영성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사례발표는 좀 더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사례는 좋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 사례는 영성을 기초로하는 사업을 하는 내용을 사례로 선정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현재 한국에서 영성은 보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므로 좀 더 보편적인 언어로 정립이 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한경직 목사님이 모델이 될만한 것으로 보이며, 교회중심적으로 접근하여 사회복지와 영성을 접근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심포지엄의 대상을 포커스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세이비어 교회는 상품성이 있고, 대중적인 논리가 접목이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여 movement가 필요함
 - 현재 특정 공동체의 영속성을 가지고 가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
-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임, 디아코니아영성의 일반화가 중요함
- 영성이 깊어지면 통찰력을 가지고 일반적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일 공동체가 아니면, 현장성의 모습을 가지 영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
 - 심포지엄 서두에 영성신학자에게 영성을 쉽게 설명하고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이를 대상별로 적용가능함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 봉사에 대하여 소진은 항상 내면적 문제에 대한 것이다. 외부의 사례처럼 sun-city, 행복촌처럼 사례발표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세이비어 교회는 관심이 있는데 사례발표1에서 중첩이 될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영성신학과 관련된 사례가 필요함
 - 국내사례를 여러 가지 발표를 대안으로 하면 현 심포지엄 형태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현장에서 적합할 수 있도록 타종교와 비교하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세미나의 배열을 목회자, 실무자 중심으로 요일을 배정하면 좋을 것 같음
 - 기독교재단의 차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필요로하는 기관에 대한 순회교육도 필요함
 - 현재 독일에서 디아코니아를 전공한 사람은 김옥순 한일장신대, 허우정 덕수교회, 홍주민 기장측, 이승열 예장통합 사회봉사부 등이다.
 - 전체 대회에 사회봉사와 영성에 대하여 영역별 세미나와 각 대회에도 전반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모든 내용은 유장춘 학술위원장에게 위임을 하고, 추후 사안에 대해서는 문서를 회람하면서 추가의견을 개진하도록 함

4. 폐 회

6시 13분 유장춘 위원장이 주기도문을 하고 폐회 선언을 함